

큰빛은혜교회 가정예배지

2025. 10. 29. WED



가정 예배 순서

예배준비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해주세요
인도자 / 기도자 등의 순서를 정해주세요

사도 신경

다 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양

“선하신 목자”

다 같이

각 가정마다 악기를 가지고 아래 찬양 혹은 원하시는 찬양을
선곡하여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벌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후렴 나를 푸른 초장과 실 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대표 기도

가족 중 한 명이 기도합니다

기도자

성경 봉독

창세기 27장 30~46절

다 같이

30.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31.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32.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33.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34.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 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35. 이삭이 이르되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네 복을 빼앗았도다
36.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37.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이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38.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 뿐이니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39.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40. 너는 칼을 밧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41.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42. 만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43. 내 아들이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44. 네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45. 네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46.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헛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헛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말씀 나눔 하나님께 거절당하지 않는 복 인 도 자

본문은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가로챈 직후, 사냥에서 돌아온 형 에서가 그 사실을 알고 통곡하는 비극적인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간의 욕망, 속임수, 편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야곱은 속임수로 복을 얻었고, 에서는 복을 잃고 통곡했습니다. 이삭은 자신이 속았음을 알고 심히 떨었습니다. 그러나 이 혼란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복은 인간의 수단이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며, 또한 한 번 선포된 축복은 되돌릴 수 없는 영적인 권위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과 개인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여겨야 할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깨닫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빼앗긴 축복을 향한 에서의 '때늦은 통곡'입니다

에서는 사냥에서 돌아와 아버지께 별미를 올리며 축복을 구합니다. 그러나 이삭의 입에서 “네 아우가 와서 네 복을 빼앗았도다”라는 말을 듣자, 에서는 “크게 소리 질러 통곡하며” 아버지에게 간절히 매달립니다.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여 주소서.”

본문 34절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 통곡은 기회 있을 때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것을 잃고 난 후의 뒤늦은 후회입니다. 에서는 이미 전에 팔족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과 그에 따른 장자의 축복을 세상의 일시적인 만족보다 하찮게 여겼습니다.

혹 우리에게도 에서와 같은 통곡은 없습니까? 세상의 쾌락이나 눈앞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복, 예배의 기회, 믿음의 가치를 경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에서의 통곡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복을 소중히 붙잡으라는 강력한 경고로 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 되돌릴 수 없는 축복과 이삭의 깨달음입니다. (33절)

이삭은 에서가 야곱에게 축복을 빼앗겼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심히 떨며” 반응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선포한 축복을 취소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가 그에게 축복하였은즉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니라”

본문 33절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삭은 처음에 하나님의 뜻(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을 거역하고 에서에게 축복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속임수를 통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에게 언약의 축복이 선포되었습니다. 이삭은 이 모든 혼란을 통해 이루어진 축복이야말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임을 깨닫고 이를 인정합니다.

이삭은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인간의 실수나 최악된 방법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진정한 축복은 인간의 말이나 행위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할 복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 아무도 취소할 수 없는 영원한 복입니다. 그 복을 받게 되는 가정과 개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형 에서의 분노와 야곱의 피난입니다.

축복을 받지 못한 에서는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일로 말미암아 그를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 돌아가실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고 계획합니다. 야곱의 속임수는 결국 형제간의 증오와 살인 계획이라는 비극을 낳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외삼촌 라반에게로 급히 피신시킵니다.

야곱은 복을 얻었으나 그 대가로 평안을 잃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리브가와 이삭 역시 사랑하는 아들을 떠나보내야 하는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라 할지라도 인간적인 최악된 방법을 사용하면 그에 따른 고통스러운 결과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목적을 위해 우리의 악한 행동까지 사용하시지만, 그 악행 자체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 인간적인 술수와 속임수를 사용하는 것은 결국 우리 삶에 피할 수 없는 환난과 고난, 그리고 관계의 파괴를 가져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성실함과 인내로 기다리는 복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1. 예서는 장자의 복을 가볍게 여겼다가 통곡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복과 믿음의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있나요?
2. 이삭은 속임수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기다리는 것은 무엇인가요?
3. 야곱은 복을 얻었지만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 위해 어떤 준비와 순종을 하고 있나요?

중보기도 베이 지역과 미국을 위해

다 같이

1. 미국의 교회가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고 진리를 선포하도록
2. 이민자들과 소외된 이웃이 교회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3. 미국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른 정책을 세우고 실행하도록
4. 베이 지역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볼 수 있도록
5. 베이 지역을 붙잡고 있는 물질만능주의, 동성애가 떠나가도록

마무리 기도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한 복이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예서처럼 후회하지 않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뜻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는 가정과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다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